한화투자증권

2025년 12월 1일
산업분석

철강 (Positive)

K-스틸법: 철강 산업 생존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Analyst 권지우 jiwoo.kwon@hanwha.com 3772-7689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철강 산업 생존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1월 27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지지로 통과시켰다.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약 40년 만에 정부가 철강산업을 독자적인 지원 대상으로 법제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신설되고, 산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된다.

합법적 공조를 통한 공급 과잉 해소 유도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다. 이 조항은 공급 과잉 등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다. 치킨게임 양상의 점유율 경쟁에서 벗어나 업계 차원의 질서 있는 감산을 논의할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제37조(기업결합 심사 특례)에 따른 심사 기간 단축(최대 120일→90일)은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과 M&A를 가속화하여, 만성적 공급 과잉인 철근 시장 등의 재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통상/수입방어: '우회로' 차단 및 공공조달을 통한 내수 방어

내부 문제(과잉 공급)에 대해서는 감산 및 구조조정으로 대응한다면, 외부 문제(저가 수입재)는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를 통해 대응한다. 향후 실질적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조항은 정부가 ①원산지 규정 강화, ②부적합 철강재 유통 억제, ③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품질 기준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제5조(기본계획)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에 '국제 교역 및 관세 현황'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강제하여, 수입재 모니터링을 상시화했다. 또한, 제22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제품의 공공조달 우선구매는 공공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비관세 장벽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 비용 분담 및 저탄소 시장 육성

수소환원제철 전환과 전기로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수소 망 구축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 · 확충)는 기업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POSCO홀딩스, 현대제철 등의 CAPEX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제26~27조를 통해 스크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생철자원'으로 규정하고 가공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전기로 원가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스크랩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한편,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제10조·제11조는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할 때, 제39조(기술개발사업 촉진 특례) 등을 통해 고부가 철강재 R&D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K-스틸법, 중장기 체질 개선에 기여 전망

향후 후속조치의 내용 및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켜봐야 하나, K-스틸법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철강 산업의 바닥 구간의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법안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과잉 해소(구조조정)'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 인프라 지원, 구조조정, 수입 규제, 저탄소철강 지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POSCO홀딩스, 현대제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표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과제	세부 내용	근거 조항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공정거래법 특례)	공동행위 허용(담합 예외)	-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등 위기 시 산업부 장관 승인(공정위 동의) 하에 공동행위 허용 - 생산 물량 제한(감산), 설비 가동률 조정, 설비 공동 활용, 원료 공동 구매 등 가능	제 38 조
	M&A 심사 단축	-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기업결합 시 공정위 심사 기간 단축 - 기존 최대 120 일(30+90 일) → 최대 90 일(30+60 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	제 37 조
	정보 교환 허용	- 사업재편 신청 및 승인 기업 간 필수 경영 정보(설비 가동률, 원가, 제품별 손익 등) 교환 허용 - M&A 실사 과정의 비공개 정보 공유 허용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제 38 조제 3 항
인프라 및 투자 지원(CAPEX 부담 완화)	국가 인프라 지원	- 전력·용수·수소 공급망 구축을 국가 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의무 반영 -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확대에 필수적인 유틸리티망 국가 주도 구축	제 28 조
	저탄소 철강 특구	- 철강 사업자 및 지원 시설 집적 지역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 - 산업기반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인프라 지원	제 23~25 조
	세제·금융 지원	- 사업재편 및 저탄소 기술 도입 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제 감면 -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 11 조 제 35 조
기술 혁신 및 원료 확보(원가 경쟁력)	저탄소 기술 육성	- 수소환원제철, 고로→전기로 전환 기술 등 '저탄소철강기술' 지정 및 R&D 지원 - 기술개발 과제 선정 절차 간소화 및 민간 부담금 비율 완화 (R&D 특례)	제 10 조 제 39 조
	재생철자원(스크랩)	- 철스크랩을 폐기물이 아닌 '재생철자원'으로 정의 및 가공전문기업 육성 - 가공·유통 기반 시설 구축 및 인공지능(AI) 검수 시스템 도입 지원	제 26~27 조
시장 창출 및 보호 (내수 방어)	공공조달 우선구매	- 탄소 감축 기준을 충족한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제품 우선 구매 계획 수립·시행 의무	제 17 조 제 22 조
	통상 대응	-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수입재 유통 억제 등 수입 방어 법적 근거 마련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 교역 및 관세 현황' 포함 의무화	제 5 조 제 29 조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	-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5 년 단위 기본계획 및 1 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이행 점검	제 5 조 제 9 조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 년 12 월 1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지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 년 9 월 30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2.9%	17.1%	0.0%	100.0%